



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대표 ⑥

네팔 대표 음 프라카스 푼

“5년 혹은 10년 비자 발급해 주세요”

한국에서 기독교 배워 네팔사람들에게 전도할 계획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경영학(전문대학)을 전공한 후에 1997년 한국에 와 석재가공기술을 습득하여 현재 16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음 프라카스 푼(사진·41)을 만났다.

네팔에는 부모님과 형과 누이가 살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1개월에 1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거리가 없어서 취직이 안되고 있다.

음 프라카스는 한국에 오기 위해 진 빚을 다 갚았으며 석재가공기술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항상 비자가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정부에서 비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5년 혹은 10년 비자를 주면 좋겠다. 기술도 배우고

한국말로 잘하니 한국에서 고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한국이 고향 같다고 한다.

한국이 좋은 점에 대해 음 프라카스는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좋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도 많다. 그러나 한국은 사는데 아주 편안하다.

집에서 회사까지 15분간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음 프라카스는 현재 신북면에는 60여명의 네팔인들이 공장에 취직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동네별로 자주 만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네팔인들과 함께 배구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음 프라카스는 기독교인으로

한국에 와서 더욱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한다.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해 많이 배워서 네팔에 가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입학해 1학기 공부하다가 쉬고 있다고 한다. 한국말이 어려워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동네별로 성 마다 모임을 갖고 있는 네팔인들은 가수와 탤런트를 초청해 동네문에서 그들의 잔치도 마련한다. 네팔 대사관도 한국에 문을 열었다. 아직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부산 해운대에 여행을 다녀

왔을 때라고 한다. 양주시에 있는 도금공장에서 근무할 때 그 회사 사람들과 단체로 다녀왔다고 한다.

네팔에서도 추석과 설 명절을 지낸다. 따라서 이 명절에는 많은 네팔인들이 모여 축제를 열고 있다.

아침 6시30분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음 프라카스는 오후7시30분에 출근하여 오후7시까지 근무한다.

2002년도에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음 프라카스는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5월6일 창동에서 개최되는 네팔인들의 체육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한마당 이야기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녀가 정원 앞에 앉아 있는 하얗고 긴 수염을 가진 3명의 노인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잘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말하길, "나는 당신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당신들은 많이 배고파 보이네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지요."

"집에 남자가 있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아니요. 외출중입니다"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였고 남편은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집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그들을 안으로 모시라"고 하였다.

부인은 밖으로 나갔고 그 노인들을 안으로 들라 초대하였다.

‘아름다운 이야기’

그들이 대답하길,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왜죠?"라고 그녀가 물었다.

노인중 한 사람이 설명하였다. "내 이름은 부(富)입니다." 다른 친구들을 가리키며 "저 친구의 이름은 성공(成功)이고 다른 친구의 이름은 사랑(Love)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자, 이제 집에 들어 가셔서 남편과 상의하세요.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부인은 집에 들어가 그들이 한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였고 그녀의 남편은 매우 즐거워했다. "굉장하네." 남편이 말했다. "이번 경우, 우리 '부'를 초대합시다."

"그를 안으로 들게 해 우리 집을 부로 가득 채웁시다."

부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여보, 왜 '성공'을 초대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며느리가 집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 며느리가 그녀의 제안(생각)을 내 놓았다.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집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우리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들임시다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다. "밖에 나가 '사랑'을 우리의 손님으로 맞아 들입니다."

부인이 밖으로 나가 세 노인에게 물었다.

"어느 분이 '사랑'이세요? 저희 집으로 드시지요."

'사랑'이 일어나 집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다른 두 사람(부와 성공)도 일어나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놀라서, 그 부인이 부와 성공에게 물었다. "저는 단지 '사랑'만을 초대했는데요. 두 분은 왜 따라 들어오시죠?"

두 노인이 같이 대답했다. "만일, 당신이 부 또는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중 다른 두 사람은 밖에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사랑'을 초대했고, 사랑이 가는 어느 곳에나 우리 부와 성공은 그 사랑을 따르지요. 사랑이 있는 곳, 어디에도 또한 '부'와 '성공'이 있지요."

(문의 011-342-5834)

포천로타리클럽 우승

제3회 자선골프대회 360만원 모아 전달키로



제3회 포천로타리클럽(회장 박승찬)과 포천라이온스클럽(회장 김형석)이 자선골프대회를 4월4일 베어크리크 골프클럽에서 개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참가회원 1인당 5만원씩 160만원과 각 클럽 회비 200만원 등 360만원을 모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포천라이온스클럽에서 주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은 포천로타리클럽이 맡기로 했다. 양 단체의 상호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이날 모인 금액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3회 골프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이병민(포천라이온스클럽) ▶메달리스트 김종국(포천라이온스클럽) ▶준우승 송암 전철기(포천로타리클럽) ▶통게스트 황보길(포천라이온스클럽) ▶니어리스트 범일 김진범(포천로타리클럽) ▶행운상 이대영(포천라이온스클럽) ▶우승클럽 포천로타리클럽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새농민상 수상 이종선·김수연 부부

일동면 신기사슴농장·사과작목반 운

"저보다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많은데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현재위치에서 열심히 산다'를 좌우명 삼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에서 사슴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이종선(47)씨가 새농민상을 받았다.

신기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선·김수연 부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데 소득의 한계가 있어 당시 고소득 사업을 전망이 밝은 사슴 사육을 실시하여 고소득을 올리게 되었다.

주말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여행을 떠나는 도시민을 겨냥해 주말 목장 형식의 사슴 분양사업을 시작

하여 소득을 올리고 사슴가공 시설을 설치하여 분양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중탕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포천지역에서도 사과재배가 가능해 3천평의 농지에 친환경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9명의 농가를 설득하여 작목반을 결성하여 전국 최고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농업경영인 회장, 장애인협회, 농협대의원, 작목반장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일동농업인으로 인정받아 많은 표창을 수상했으며 장애인인에도 좌절하지 않고 힘든 농업을 경영하여 다른 농업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용경자의 세상읽기 4

어떻게 그럴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도 사랑의 일이지요. 가장 추하고 기막힌 일의 주인공도 사랑이었다. 9시 뉴스에서 하루는 애미가 어린 아들을 죽이더니 또 다음 날에는 애미가 어린 딸을 목 졸라 죽였다고 한다.

가슴이 애리고 메어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던 말인가? 진정 할말이 없었다. 어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일부의 일이라지만 난 감히 앞에서조차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아무리 이혼이 흔하고 아이들이 집이 되는 요즘이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정

신병자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돈 때문에 아니면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도저히 울림거리까지 한 이 마음을 진정 시킬 길이 없었다. 아무리 모자란 저능아부모라도 자기새끼만큼은 알아보는 게 본능이라는데.

소리 없이 흐느끼듯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니 하늘도 울고 있었다. 어린 영혼이 외롭고 추워서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울고 있는 것 같다. 엄마의 품을 찾아 해매고 있지 않을까? 어느 누가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 너무 기가 막혀서 위로조차 할말이 없다. 부디 불쌍한 그

아이들이 부처님 품속에서 위로 받고 자손이 아주 귀한 가정에 좋은 부모님 만나 환생하게 해주소서라고 기원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타인을 먼저 소중하게 대해야 하듯이 귀한 부모가 되려면 내 아이를 귀하게 대접해야 하지 않을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에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서의 대접을 해준다면 손수레를 끌더라도 그 아이는 진정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대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강화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시원과 찜질방, 산후조리원, PC방 등 7개 신종다중이용업소는 앞으로 모두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같은 개정 소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6일 포천소방서는 포천시와 새무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법 개정 이후 5월30일까지 경과조치 경과한

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행정조치에 앞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개정소방법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돼 현재 소방법을 적용 받지 않는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소방법은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며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신종 자유업소가 계속 생길 것에 대비해 가정 '다중이용업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새로 생기는 업소들에 소방법을 포괄 적용하기로 한다.

적용대상은 휴게음식업 또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으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 이상, 지하 66㎡ 이상인 경우, 게임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파킹, 노래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롤러텍,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등이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47번 국도 4차선 인근 도로옆

최적의 입지공간 공장임대

전여 15동

제조업 · 철공장 · 금속공장 등에 최적

보증금 : 1500만원
월 임대료 : 180만원

공장등록필, 한동에 동력 30kw, 넓은 주차공간 보유

